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살아 숨쉬고 있다.

●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크 시애플이 소리 없이
silent apple

●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첫째 날

#1 성산패총 야철지 앞 (외동 853-7) (야철지 가는 길)

지인

어 안녕하세요!

윤지원, 우아름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지인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나올 때부터는 사람들이 좀 차서... 아...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아름

맞아요. 게다가 지금 빛도 살짝 바뀌었어요.

☞ 오늘 서울 올라가시나요?

지인

네, 저는 이제 역으로 가요.

(야철지를 나오며)

윤지원

아까 그분이 말한 건 뭐였을까.

우아름

하하. 마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로봇 같은 대사네요. 설명해 볼까요?

윤지원

네, 알고 싶어요.

우아름

저도 짐작이지만... 야철지는 공간이 땀 뚫려 있고, 유리창이 많아서 바깥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을 가벼운 사운드 작업으로 채워냈으니, 일시적으로 본인이 세계와 화합하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했던 순간에, 구름이 지나갔는지 빛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어진 순간이라고 해도, 그 장소에서 조우하는 감각은 아주 달라지죠.

윤지원

과연... 인간은 흥미롭네요...

#2 식당(상남동 73-5)

우아름

택시에서 지원 씨가 “왜 비엔날레는 역사적인 장소를 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비엔날레만이 탐하나? 솔직히 나는 나도 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에 관한 욕망이 관객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비판받을 일이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서.

윤지원

어떤 효과를 내는가 따져 보자는 거죠. 오늘 성산패총은 좋았어요. 그런데 비엔날레의 역할, 미술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과 엮어서 생각해 봤을 때, 장소에서 오는 감흥과 미술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가, 뭉뚱그려서 봐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무하유에 놓여있던 잡지¹에 비엔날레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공간 경험으로서의 전시’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흥미로운 개념인데 그에 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소의 경험이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아름

뭐가 꼭 더 필요한가.

윤지원

말 그대로 공간의 경험이 전시가 될 수 있다면 ‘미술 작품’이 없어도 되는 건가?

우아름

작품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작품의 범위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곳에 어떤 장면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관객이 거기까지 가는데, 미술이라는 약속의 체계 안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작품은 그 약속의 매개체가 아닐까.

윤지원

미술은 일종의 투어리즘인가요?

우아름

아뇨. 투어리즘은 나를 장소로부터 분리하는 데서 생기는 태도 같아요. 내가 예상한 경험을 기준 삼아 외부의 장소를 소비하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전시 장소를 찾아가갈 때 관객은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관객이 전시의 요소를 바꿀 수가 없는 수동성을 받아들인 후의 경험인 건데... 그게 장소와 융합되는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빛이 어떻게 바뀌고, 날씨가 어떻게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 모험이면 몰라도 투어리즘은 아닌 것 같아요.

윤지원

그게 어떻게 모험이에요? 그렇게 안전하게, 모든 게 안내되어 있는데.

우아름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지 디테일에 관해서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관광지에서의 경험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예상과

다를 때는 조정할 수 있지 않나...? 비가 오면 우산을 사고,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윤지원

경험의 충돌 내지는 대비를 통한 전시의 작법을 통해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원래 있던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에 그친다면 관광지 상품이 되지만, 장소와 작품과 결합해서 각각에 속하지 않는 제3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나아가 그 효과가 전시라는 하나의 구성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 요소로 기능하면 더 좋을 테고요.

우아름

하지만 장소의 현장에서는 계속 우연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시의 작법이 될 수 있나요? 우연까지 큐레이터가 조직할 순 없잖아요.

윤지원

할 수 있죠. 그 우연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아름

예를 들면 날씨 이런 것이요?

윤지원

날씨나 풍경, 목적지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다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특정 장소가 미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작가가 그 요소를 작품에 끌어들이 장소 특정적 미술이 되듯이, 큐레이터도 장소를 전시의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겠죠. 실내 전시 공간인 아트홀에서 조각 작품을 보고 야외를 포함한 다른 장소에서 조각 작품을 볼 때 느끼는 차이를 예측하고 의도해서 전시를 구성하는 건 일종의 몽타주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각각의 방식과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우아름

이 질문 하나로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겠네요.

윤지원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요?

#3 토요일인 창원 근처 거리(상남동 73번지 ↔ 상남동 35번지)

윤지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우아름

말로 하면 되게 초라해질 수도

1 원시원, 「미리 보는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시간과 소리없이」, 『김중영미술관소식지』 29호(2024), 41-43.

있는데.

윤지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야 해요. 그럴듯한 게 오늘날 미술의 적인 것인 거 같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 생각하는 바를 말로 하면

두루뭉술하게 생각했을 때보다 의미가 축소되고 머릿속에선 멋졌던 것들이 그렇지 않아지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아름

맞아요. 그리고 정직한 태도만으로 독창성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장마리 스트로브(Jean-Marie Straub)와 다니엘 위예(Danièle Huillet) 처럼. 어떤 자의적인 해석도 하지 않고 텍스트 그대로 옮기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요. 이게 바로 비창조적 창의성인가. 이걸 또 다른 얘기긴 하네요.

¶ 아무튼 그래요, 멋 내지 말기로 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윤지원

요즘에 보면, 뭐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문 거 같아요. 그냥 좋네. 그 좋은 게 어디서 올까. 정확한 칭찬이 아니라면 그건 아첨이거나 이상화겠죠. 그런데 정직할 용기가 없으면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시네필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영화 진짜 너무 끝내줘,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진짜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니? 라고 묻고 싶어지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깐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속여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하곤 해요. 반대편에는 그건 정말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돌아봐야겠죠. 그 작품을 감상하는 이해의 기반을 충분히 갖췄는지. 싫은 것, 모르는 것, 나쁜 것을 뒤섞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아름

좋은 것을 말하는가 싫은 것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런데, 정말 다른가? 다르다면 각각의 경우 무엇을 기대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윤지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좋은 데에도 백 가지 이유가 있고 싫은 데에도 백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아름

아무튼 정직하자고 했을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죠?

윤지원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자는 주의이기는 해요. 비판이라는 게 더 이상 유용한 방법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비판보다는 믿는 것, 지지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아름

임파워링의 방식, 교육자의 방식인가요?

윤지원

그러려고 노력하죠. 오히려 제가 싫은 게 많은 사람이라서 더. 근데 자주 실패해요. (웃음)

¶ 감상의 기준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미술을 어떻게 본다는 걸 우리부터 조금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아름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 한마디 파헤치면서 그건 웬데, 저건 웬데 이러면서.

윤지원

장소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아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든 좋죠.

윤지원

몇 가지 이슈들을 정해 놓고 얘기를 해보죠. 그래야 조금 이야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우아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 정확한 칭찬이 정답 맞기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지원

네, 그럼요.

우아름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작가도 몰랐던 부분을 보는 사람이 칭찬할 수 있고, 그게 정확한 칭찬일 수도 있다고.

윤지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제대로 관찰했는가는 저절로 파악되니까요.

¶ 우리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우아름

사실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그러게. 나한테 미술이 뭘까...

윤지원

개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근거로 개똥

미학을 가져와 보자는 거죠. 이 미적 판단의 기준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우아름

나는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웃음) 작가의 작업 맥락을 보면 작업의 기제가 내적 동기인가 외부적 기준인가가 보이잖아요. 전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성에 잘 도달하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도 있어요.

¶ 우리가 얘기한 멋 부리지 않는 태도와도 닿아 있는데, 그냥 자기 동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밟아 가는 사람이 결국 갖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작업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한테는 기준이에요.

¶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술집이 오래 열지 않을까요? 지금 의외로 9시 15분밖에 안 됐네요.

윤지원

배가 너무 불러요.

우아름

그러면 좀 걸어요.

¶ 막간에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전시장에서 내 편지 작업 보면서 뭐라고 했죠? 감성 어저고 했는데.

윤지원

문학소녀.

우아름

편지의 글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작업 자체는... 논리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지원

(큰 웃음)

우아름

거기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금 굉장히 웃으시는데, 편지의 문장은 표피에 드러난 언어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맥락이 있는 거니까요.

윤지원

아니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편지를 한 장씩 뜯어 가는 방식에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큰따옴표를 그리며)

우아름

그거는 이동이죠. 한 장씩 뜯는 거. 볼륨이 줄어드는 거. 그건 조각이고, 조각의 이동이죠.

윤지원

편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상당히 감성적이죠. 줄어든다, 한 명씩 이 편지를 간직한다. 이런 거요.

우아름

그건 벽에 걸어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윤지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래요. 뜯긴 흔적이 보이는
방식으로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수량 파악이 되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가고 편지를
수신하고 이런 것을 가시화시키는
설치 자체가.

¶ (백죽집 가리키며) 이런 데 갈까요?
우아름
음악이 너무 커요. 한적한 길가
편의점 파라솔 자리가 좋은데.
그러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행인
아이, 이러면 된다. 그냥 만나면
되는 거죠!

우아름
사람들이 편지를 간직하는 데 의미를
두진 않았고, 그 줄어드는 정도가
전시장에서 보였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냥 쌓아놓으면 현재
상황만 있잖아요. 물이 줄어들 수
있지만 원래의 수위가 표시돼 있는
것처럼...

행인
아, 이 자체가 스트레스네.

윤지원
그게 아닐로그죠.

우아름
아날로그 오케이, 감성은 모르겠다.
그거는 나에 관한 정보 값에 의한
지원 씨의 추측이지 않을까?

윤지원
이 시대에 아닐로그는 '감성'이지.
(웃음)

우아름
그거는 그래. 그치만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네.

윤지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각적인 증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우아름
그렇다면 그건 생각해 볼만한
지점이에요. 작가가 시각 언어라는
게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효능이 감성에 있기는 하죠. 감성을
확장시켜서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것.

¶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목적 이외의 것에는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무관해지게 되죠.
감정도 에너지라면 일종의 엔트로피
같은 건데, 예술은 역엔트로피를
일으키는 일인 것 같아요. 부러 나와
무관한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관계 맺게 하는.

#4 카페(상남동 35-3)

우아름
았으니까 좋네...

¶ 우리는 오늘 뭘 봤지?
윤지원

감흥이 왔던 거는 정서영 선생님이
그 높이에 모래를 깔고 놓은 종이
형태의 조각을 봤을 때. 뭐랄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대가의 터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아름
뭐 때문이에요?

윤지원
디테일한 조정. 이것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구현시켰을
때 진짜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아름
이 감미료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 정확하게 알고 요리하는
요리사처럼요? 기대와 그 효과가
일치하는 선택.

윤지원
네. 일반적인 안전한 선택이
아니예요.

우아름
그 높이가요?

윤지원
그 높이와 그 모래를 쌓아두는
것과 전시장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 조각만 보이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공간에서.

우아름
맞아요. 공간에 입장하는 것부터
독특했어요. 바깥으로 나가듯
유리문을 밀면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면, 심지어 한 쪽
벽이 유리 통창이라 바깥 풍경이 다
보이고. 건물 안에 있지만 반쯤은
외부 공간 같았어요.

윤지원
그게 좀 신기해요. 그 창을 완전히
막는 선택이 있고 반투명으로
막는 선택이 있는데, 반투명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을 한 근거가 뭘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아름
그럴 거면 왜 거기서 하나는 자문이
들 것 같은데. 그걸 다 막으면 있는
조건을 없는 척,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잖아요.

윤지원
그게 조건이라고 치면 그냥 밝은 빛
자체를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우아름
너무 밝은 빛은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이 보이는 투명성은 가져가되,
밝은 빛은 톤 다운 시킨 게 아닐까?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윤지원
이게 작업을 한 다음에 보는 거는
쉽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예상하긴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면 못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택하려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우아름
그건 재밌네요. 시점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미래로,
내가 이 선택의 끝에 도달할 미래를
정확하게 구현해 내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윤지원
경험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 연출이.

윤지원
김종영 선생님의 나무 조각의
귀여움도 너무 좋았고요.

우아름
귀여운 거는 사실 그냥 그것으로 다
한 거죠.

윤지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귀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아름
일반적으로 곡선은 귀엽죠. 탕후루
실루엣이잖아요.

윤지원
그런 거면 누구나 김종영 되죠.
단순함으로 뭔가를 구현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단순함이 좋은 거라는
생각도 점점 많이 들어요. 군말 없이
딱 뭔가를 했을 때 딱 나오는 것이요.

우아름
그런데 지원 씨의 작업, 영상 언어나
몽타주는 단순함과 거리가
멀잖아요.

윤지원
제가 요즘에 하는 작업에서는
복잡함을 추구하죠. 쌓아가는 거

안에서 생기는 복잡함.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아름

자신이 그럴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윤지원

그리고 제 작업도 원리상으로는 단순해요.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 단순함 속에서 복잡함을 구현하고 싶어요. 복잡함을 품은 단순함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미래의 작품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우아름

상상이 안 가요.

윤지원

그래서 만들어진 걸 보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상상하는 거는 어렵죠.

¶ 이번 비엔날레는 언어화하려고 할 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각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아름

전시가 기승전결의 구획은 아니었죠. 그런데 뭐랄까, 각각의 작업이 왜 여기, 이 작업 옆에 놓였는가가 납득되는 선택이 쪽 이어졌던 것 같고, 그게 전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장면의 연출, 그 리듬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지원

장면의 연출에 가까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아름

그리고 그 장면의 연쇄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고. 특히 나는 지하 공간에 세 개의 스크린이 있던 곳에서는 공간에 창문이 있는지 착각했거든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거기는 사면이 막힌 지하인데 햇살이 있다고 느껴진 것이요. 스크린의 배치와 이미지 때문일 텐데, 전시가 전반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엔날레 규모에서 전시 디스플레이를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 생소할 순 있겠어요.

윤지원

맞아요. 전시를 연출하는 사람도 자기를 설득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 거거든요.

우아름

‘언어화’를 통해서요?

윤지원

네,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논리를 언어의 논리로 따져보고 정당화하는

게 사실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런 규모의 전시에서 이미지의 논리를 전면으로 앞세워 꾸린 다른 사례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드문 사례라고 생각해요.

¶ 정석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아름

“정석대로 했다”는 게 나 같으면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뻘하다”는 말로 느껴져서.

윤지원

정석대로 해도 결과적으로 상투적인 게 있고 상투적이지 않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투적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정석적인 거랑 뻘한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정석이나 아니냐는 방식의 선택인 거니까.

우아름

그러면, 어제 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비엔날레가 감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엔날레의 역할이 동시대의 시의성, 정치적 지형이나 문화예술의 위상을 고려한 이슈를 던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같은데, 저는 적어도 이번 비엔날레를 보면서 그것이 없음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감각의 향연을 대규모로 펼치면서 바로 언어화되지 않는 경험을 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윤지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술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아름

감각은 언어 이전에 있잖아요. 저는 언어로 소화되기 전의 감각에 산업화되고 획일화된 감각을 벗어나게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창원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웃음) 이 지역을 잘 안다면 보다 현실에 닿아 있는 이야기할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 그렇다면 심포지엄의 제1섹션을 차라리 감각으로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해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전시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날 그거에 대한 담론까지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 2024년 가을에 열린 이 비엔날레가 감각에 관한 담론의 재료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차에 베풀어야 하나 잠시 생각했어요.

윤지원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감각에 치중했다는 말이 곧 담론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각을 통해서 발생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측면을 유념해야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다면 미술의 언어를 다시 말과 글로 바꾸어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 언어화를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우아름

“지금 여기~~!” 이번에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발행해 보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미술의 기록과 언어에 비평, 저널리즘 여러 언어의 방식이 있겠지만, 나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능성들, 너무 풍부하거나 반대로 사소해서 삭제하고 싶은 디테일도 거기에 끼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아무튼 제 대답은 지금, 여기, 우리.

윤지원

우리는 결국 그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아름

2010년에 꿀풀에서 내가 이수성 작가한테 글 써준 후에 지원 씨랑 비평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원 씨가 비평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평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했죠.

윤지원

기억이 안나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비평은 반드시 비평가가 한 비평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란 말을 덧붙일게요. 동시에 그 언어가 작품과 1대 1로 대응하거나 작품을 대치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이야기해 두고 싶고요.

우아름

그건 한계가 아니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윤지원

그렇게 말로 전할 거면 굳이 왜 작업을 해야 하느냐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봐 노파심에...

우아름

비평도 그 글쓴이의 작업인 거니까 두 사람의 감각이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대응도 대칭도 아닌 거리를

돈 판단이죠.

윤지원

그리고 작업에 대한 말과 글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일 거고요.

우아름

글썸... 그건 싫은데. 아, 이럴
수는 있겠네. 글에 언제나 태그가
달리는 거죠. 이것은 2024년 10월
(미술가의) 작업에 대한 (글쓰이의)
작업이라고 한다면지.

윤지원

관찰자의 위치는 관측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일 차

#5 카페(사파동 45-9)

우아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지원
씨의 작업은 '공간에 펼쳐지는
조각'이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흥미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일종의 개념 미술
작업이었던 건가요?

윤지원

저 스스로 수행해 내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활동이었죠. 규칙을
고안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과도 이어져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술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걸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게 뭐가?
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나?' 이런
질문이에요.

우아름

그리고 십여 년 지나 다시 만났을
때는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계셨고요. 영상으로 옮겨가게 된
게기가 궁금했어요.

윤지원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속 가능하고 매일 반복 가능한
작업의 필요를 느꼈어요. 조각가의
조각이나 페인터의 회화처럼 매일
내 신체를 움직여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 경험이 내 신체에
쌓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영상이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우아름

몽타주를 다루는 영상은 몸을
움직인다기보다 머리를 쓰는
작업으로 느껴지는데.

윤지원

요즘 읽고 있는 책 『예술 강의 20』²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술이라는 게
흔히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현하는
활동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찾아나가는 적절한
지점이라는 것. 푸티지를 쓰더라도
그 안에서 길을 헤매면서 몽타주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어제 장소성에
관한 얘기를 했죠.

¶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문신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만, 자, 내가 이걸 안 버린
이유가 있어요.

(문신미술관에서 가져온 프린트물을
꺼내 읽는다)

¶ "...원과 직선이 기하학적인 형태지만
우리 전통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온 우주를 이루는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작가 스스로 우주 조형의
기본 원리를 품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꿈을
오늘날에도 품을 수 있는가, 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건드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 그러니까 현대성에 관한 건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있어요.

우아름

문신미술관 정원 팻말에 그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문신은 탄광
노무자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13세 무렵부터
마산 시내 영화 간판 그림을 그려
돈을 벌었고, 그러다 열여섯 살
되던 해에 유학생 친구와 대화 중
일본행을 결심하고 밀항했다고.
청운을 안고 어찌 보면 무모하게
떠난 거잖아요.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죠. 그 배움이 믿음을
미리 재단하는 것 같아요.

윤지원

대화를 위해 내가 미리 적어놨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됐는데,
더 많은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 욕망도 가꿀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욕망에 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미술은 무엇을 할니까?
— 이어서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세계를 꿈꿀 수 있습니까?
— 어떤 한국을, 어떤 미술계를, 어떤
미술을 그릴 수 있습니까?
¶ 거시적인, 하지만 지금 시대에 잘
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아름

그게 질문이라면 지원 씨의 대답이
있나요? 답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윤지원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데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각자가 보는 풍경이
있는 거지.

우아름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걸로 충분한
건가.

윤지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겠죠. 내가 믿지 못하니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아름

그런 질문이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저는 질문을 잘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만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선문답만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주는 좀... 산뜻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윤지원

뭔지 알아요.

우아름

하지만 질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화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빨리 답하기 위한 대답은 싫어요.
그래서 지원 씨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더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윤지원

오늘 문신 선생님의... 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시를 보고 온 다른 무리와 합류)

#6 창원발 서울행 KTX 17-18 입석 칸

윤지원

오늘 문신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감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었구나 싶고, 그런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는 느낌을 되새기고 싶다. 오늘은 새겨졌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죠. 물 위에 쓰는 맹세일지언정.

우아름

문신 선생님 삶에서 감동스러웠던 건 그 꾸준함이라 할까,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자기가 12살 때까지 살던 그 집을 다시 사고 거기에 미술관을 짓고 그런 거요. 그리고 타일 한장 한장 다 직접 자르는 성실함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윤지원

맞아요. 돌아오는 것도 보니까. 진짜 그럴네요.

우아름

예술과 사랑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셨네. 최성숙 작가님(부인)의 그림에서 눈에 들어왔던 것도 제작 연도예요. «문신의 정원» 전시에 걸린 그림들을 1995년부터 그리셨더라고요. 95년이면 문신 작가님 돌아가신 해인데. 그리고 상당수의 작업은 2024년에 그리셨고요. 1995년에서 2024년이면 거의 삼십 년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는 게...

(기차 정차)

윤지원

대전인가요?

우아름

성심당 보였어요 방금?

윤지원

성심당 봉지와 이글스 팬들이 보였어요

우아름

대전이네요.

(기차 안내 방송)

우아름

“더 많은 지식, 그렇다고 더 많은 것을 떠올립니까?” 이런 질문도 했는데, 그거는 “문신의 믿음이 지금도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질문에 딸린 거죠?

윤지원

사실 그 질문은 문신을 보기 전에 쓴 거긴 한데,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고 지향점이나 믿음을 가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아름

그렇죠. 많이 배우고도 행복하기 어렵죠.

윤지원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앎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많이 알 수록 무언가를 잃어간다면... 음... 정확한 질문을 만들기 어렵네요.

우아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공부로 가는 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웃음) 사실 공감해요. 더 많이 아는 것이라 했을 때, 사실은 정보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럴수록 그것을 소화하는 피로감이라든지,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좀 노이즈가 되기는 하죠.

¶

그런데 “앎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의 앎은 깨달음처럼 느껴져요. 깨달음은 사실 이전에 누가 깨달았다고 나도 내가 그걸 깨달으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건 진리인 거니까.

윤지원

아니요. 깨달음이라기 보다는... 정보의 취득이 아닌... 막 던져보시면... 그런 것에 가깝죠. 예를 들면 ‘자기 삶의 양식을 발명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이라 할까요?

우아름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윤지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실천적인 지식. 그렇다고 이런 실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먹을 들어 앞뒤로 흔들며)

우아름

그러면 다시 문신으로 회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나한테 문신의 그 감동 포인트는 그 진실함이었다고 했잖아요. 매일 타일을 깔고 깔고... 그 또한 실천이죠.

윤지원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얘기하려니까 내가 무슨 종교적이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우아름

좀 그래도 돼요.

윤지원

예를 들면, 그런 앎이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는 형식이라든지. 자기의 삶에서 믿음과 결합되고 지향점으로 통합되는 앎.

우아름

와. 그건 거의 지복 아니야? 너무나도 바라 마지않아야 할.

윤지원

바라야 하는. 바라 마지않는.

우아름

그건 주저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복잡하고 불행해야 할 것 같은 현대인으로서의 숙명인가요?

윤지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기차 안내 방송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아름

‘더 많은 지식’에서 지금까지 방점은 ‘지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오히려 ‘앎’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앎을 필요는 없잖아요.

윤지원

여기에서 또 하나 레퍼런스를 꺼내보자면 김수환 선생님이 쓰신 논문 중에 현재주의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프랑수아 아르톡(François Hartog)이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현재주의란 무엇인고 하니,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없이 현재가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예정된 파국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 진보와 같은 미래의 약속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냉소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자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아름

그 자문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냐는 게 지금 나의 질문이에요.

윤지원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아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냉소주의자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는 말 같아요.

윤지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냉소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술을 예로 들어보죠. 예술은 그냥 오락이지, 혹은 예술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식의 답변으로 멈춰버릴 때,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힘이나 지향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냉소주의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우아름

얘기할 수 없다기보다 안 하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윤지원

못 하는 거죠.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아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얘기하면 좋지만,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윤지원

할 수 있는 맥락 자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소수의 입장이 아닌가.

우아름

미술에 대한 열의가 있는 소수인가요?

윤지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믿음을 진짜로 갖고 있다면은...

우아름

지원 씨는 냉소주의자고 나는 아닌가?

윤지원

그럴 수도 있죠.

우아름

아니 그런데 지원 씨도 사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윤지원

못하죠.

우아름

왜요? 저 사람이 바쁠까 봐요? 내 이유는 대개 그런 건데요.

윤지원

아니요. 내 스스로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그런 충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작품에 우주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아름

아... 제가 이제 함구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게요.

윤지원

얇은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말하는 것과,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 삶이 다르면 그 문장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건...

우아름

본인이 실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가?

윤지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과 결합하는 거는.

우아름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말하나 안 하나의 문제로 가져가느냐 하면, 우리가 어젯밤에 걸으면서 그냥 본 것, 느낀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의외의 열쇠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하다 보면 얇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방을 벌이다 보면 본인이 건너뛰어버린 지점이 보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그 얇의 씨앗이 본인에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되게 열심히 전시를 보고 집에 간다고 하면, 얇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해 안 됐죠?

윤지원

네. 그리고 아름 씨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핀트가 약간 다른 거 같아요.

¶

예를 들면,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 보죠. 그러면 그것에 관해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비판하는 입장이 이상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해보죠. 이 이상주의적인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할 때, 현실의 역학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모순에 갇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신이 비판하는 상황에 자신이 처하게 되는 이 모순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식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런 이상주의적인 입장을 간직하고 풀고 실천하고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아름

아,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윤지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다 조금씩 연결돼요. 이상주의적인 입장과 문신 선생님의 믿음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컨대 한 세대 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상업화'라는 말을 여전히 비판의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근래의 '상업화'의 방식에 즉각적인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상품이 되는 세계에서, 당신과 당신의 작품이 지금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나, 그러면 작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나도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상품으로 포장하기에 몰두해야 하는 걸까요?

우아름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때는 좀 삼가는 거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아끼는 거. 그게 비겁함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신념이나 나를 끌어가는 어떤 동력, 힘이든 믿음이든 그런 것들을 늘 누군가한테 보라고 전시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발설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할 때 내가 그 부대낌 속에서도 이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윤지원

계속 핵심이 되는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미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본 거죠.

우아름

미술에 어떤 효능을 기대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떠오르는 답이 있어요? 현실의 썬신이라든지.

윤지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 뜯구름 잡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답변하자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

이제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됐지만, 카프카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 같은 것.

우아름

그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구나.

¶ 자꾸 이렇게 취재해서 미안합니다.

윤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에서는
순간순간 그런 섬광 같은 것을
만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건데, 많은 예술에서는
실망하곤 하는 거죠.

우아름

지원 씨는 미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면
또 믿음은 있어.

¶ 그러면 이게 대체 뭔가, 갑자기
자문이 드네.

윤지원

스스로 해결하시고요.

우아름

갑자기 좀 착잡해지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좀
슬퍼지네.

윤지원

다만 이게 좀 선문답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아름

이제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윤지원

그럼 다행이구.

#7 서울역

윤지원

어떻게 가세요 이제?

우아름

아직 버스 많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 이런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윤지원

아니죠.

우아름

그래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리해서 또 연락할게요.
잘 가요!

윤지원

들어가세요.

윤지원

윤지원은 미술가고 영화를 만든다.

우아름

우아름은 미술 글을 쓰고 책을 짓는다.

종종 PDF를 발행한다.